

지소미아 종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갈등 속 3년 만에 ... 靑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연장 않기로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 결정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에 돌입했다. 참석자들은 평소 회의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NSC는 장교급에 협정 파기로 결론을 내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 최종 재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며 “이 자리에는 아나연 국무총리도 자리해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약 1시간 가량 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재가했다”며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향후 한·

일 관계의 향배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또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은 결국 한일 간 신뢰문제 때문에 촉발된 상황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1년 단위로 연장되며 90일 전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하는데 오는 24일이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오늘 처서 ... 백일홍 아래 여름과 가을 사이를 걷다



처서를 하루 앞둔 22일 오전 전남 담양군 명승 제58호 명옥헌 원림(鳴玉軒 苑林)을 찾은 관광객들이 붉게 피어난 꽃 사이를 거닐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미래 신산업 발굴 나서야

빛그린산단 진입로·낙포부두 리뉴얼 등 정부 예타 통과

광주·전남 현안 사업들 상당수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혀 차일피일 미뤄졌던 사업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 대상에 올라있는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지역 발전을 견인할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에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이 들어설 광주빛그린산단 광주방면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올 들어 모두 3개의 대형 현안 사업 시행이 확정됐다.

전남도의 경우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과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 사업이 기획재정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통과하면서 올 들어 모두 5개의 대형 현안 사업 시행이 확정됐다.

하지만 전남지역 대형 프로젝트 중 예타가 진행중인 사업은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사업(1조7055억)과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1156억) 2개 뿐이다. 광주는 전남과 공동 추진 중인 경전선 전철화 사업을 제외하면 예타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아예 없다.

전남도가 핵심 현안으로 꼽는 국립심뇌혈관 질환센터(3500억)는 관련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예타 신청조차 못한 상태고 해상풍력사업과 관련, 지원부두와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2180억)도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에 조정을 맞추는 시기가 예타 신청까지는 갈 길이 멀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1800억원) 사업은 공모 절차를 밟고 있으며 광주~완도(2단계) 고속도로(1조513억), 광주~고흥 고속도로(2조 9000억), 완도~고흥 고

속도로(9008억) 사업도 고속도로 건설 계획과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돼 예타 신청을 바라볼 수 있다.

이대로라면 당분간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굵직한 지역 프로젝트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 의식이 감지된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가 비수도권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평가 기준을 완화키로 한 점에 주목, 경제 논리에 밀려 상대적으로 낙후된 광주·전남 지역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총력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미래 신산업을 계속 찾아내지 못하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뒤처지고 말 것”이라며 “지금까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을 먹여 살릴 대형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6월 가계빚 1556조... 증가속도 둔화세 지속

한은 발표, 대출 규제 영향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으로 2분기 가계빚은 완만한 증가세가 유지됐다. 하지만 가계 빚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 투자 심리가 식지 않는다면 가계 빚 증가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9년 2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6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3월 말보다 16조2000억원(1.1%) 증가한 155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은 은행이나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가계부채를 의미한다.

2분기 증가폭은 지난해 동기(24조1000억원)보다는 작지만 올해 1분기(3조2000억원)보다는 크게 늘어났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신용 증가 규모가 작년 동기 대비 줄어들었지만, 전기 대비는 증가해 지난해 2분기부터 계속된(전년 동기비) 증가를 급락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2분기 가계신용의 작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4.3%다. 2004년 3분기(4.1%) 이후 14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앞서 가계신용 증감률은 금리하락과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여파로 2015년(10.9%), 2016년(11.6%), 2017년(8.1%) 폭증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대출 억제 및 부동산 시장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작년 2분기 7.5%에서 3분기 6.7%, 4분기 5.9%, 올해 1분기 4.9%로 하락세를 보여왔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둔화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소득보다는 빠르게 늘고 있다.

1분기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작년 동기 대비 1.2%, 순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3.6%에 머물러 가계신용 증가율(4.3%)에 못 미쳤다.

1분기에 비해 가계 빚 증가폭이 많이 늘어난 점도 다소 우려되는 지점이다.

과거 분양형 아파트 입주 물량에 따른 집단대출이 증가했고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은행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가계대출이 늘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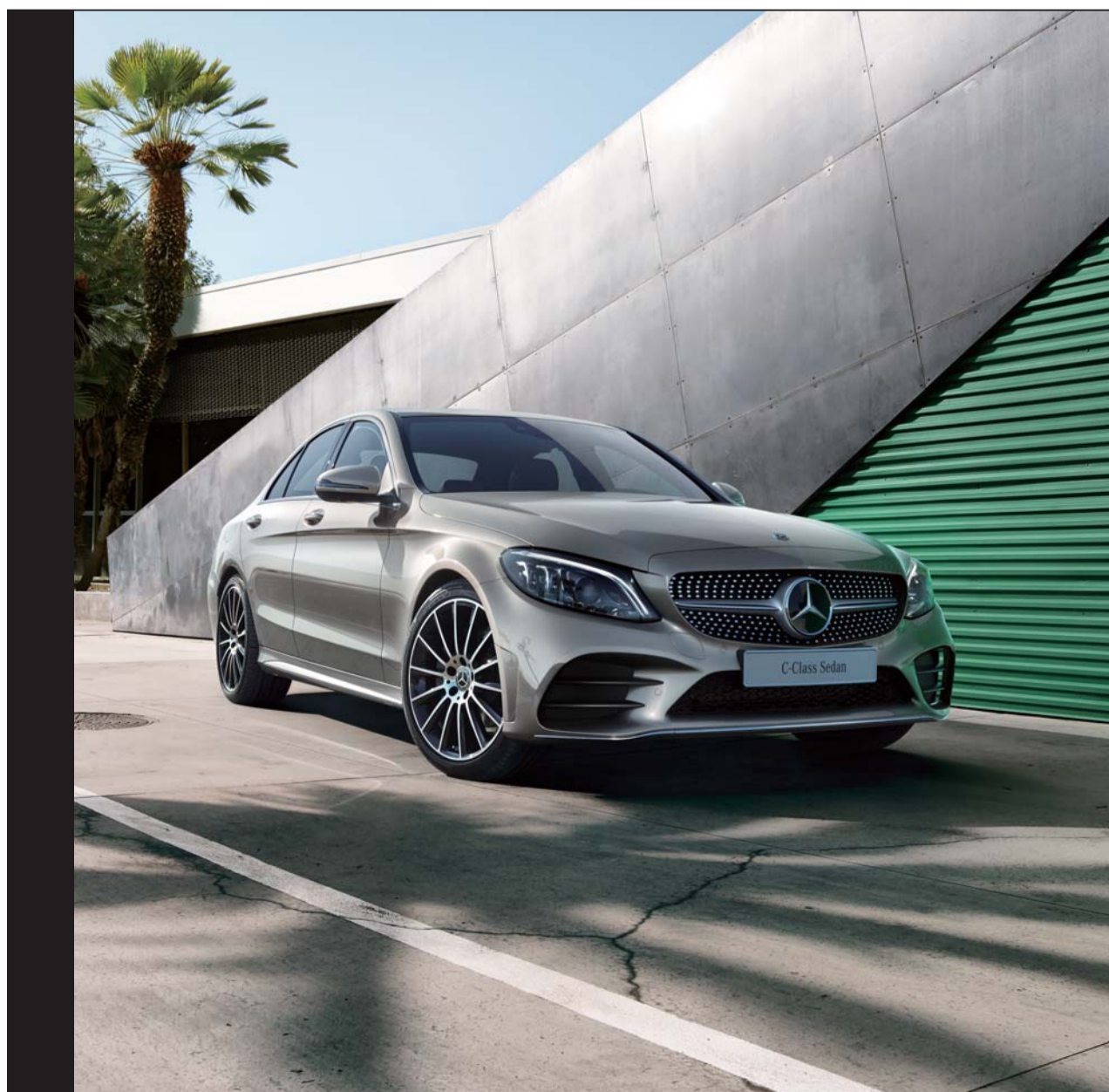
/백희준 기자 bhj@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100년 역사 '경방' 광주공장 멈춘다 ▶2면

승객 보호 시스템 없는 고속열차 ▶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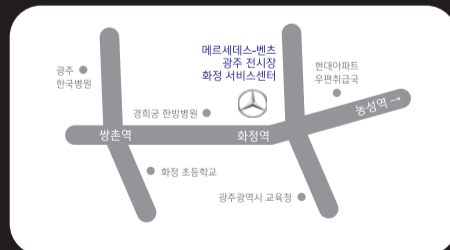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 <10> ▶18면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ℓ(도시연비: 13.2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CO₂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